

고구려와 서역의 문화교류

최광식(고려대)

고구려는 다종족 국가로서 여러 나라와 교류를 함으로써 문화가 다양한 나라였다. 고구려의 이러한 국제성과 문화의 다양성이 고구려를 더욱 막강한 국가로서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고구려로서는 중국 주변의 여러 세력과 일정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과 조공과 책봉관계를 맺으면서도 주변의 북방민족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활발한 교류를 확대해 나갔다. 문헌상에는 잘 안 나타나있지만 고분벽화와 유물을 통해서도 그러한 상황을 잘 알 수가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나는 서역문화의 모습이 그 한 예라고 하겠다. 또한 사마르칸트의 아프라시압 궁전벽화에서 보이는 고구려 사신의 모습에서도 서역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다. 따라서 고구려의 고분벽화와 아프라시압 궁전벽화를 통하여 고구려와 서역과의 문화교류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1.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서역문화

고구려와 서역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은 안악 3호분의 벽화 내용이다. 안악 3호분의 현실 동벽에는 장명, 거문고, 비파 등의 악기에 맞추어 추는 독무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춤추는 모양을 보면 다리를 꼬아 발을 구르는 것 같고, 손뼉을 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자세이다. 머리에 쓴 수건은 붉은 점이 있는 천으로 된 것이 매우 독특한데 이는 지금 신강위그르자치주에 사는 위그르족의 모습과 똑 같다고 할 수 있다.. 바지를 입었는데 바지 끝에 붉은 줄을 낸 무늬가 있다. 얼굴은 코가 유별나게 높고 또 크게 그렸으며, 눈은 가늘고 길게 그렸다(深目高鼻). 이러한 모습은 현재 위그르족의 복식과 춤이 분명하므로 당시에 이미 서역인들이 고구려에 왔으며, 이를 통해 그 지역과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안악3호분이 축조된 4세기에 이미 고구려와 서역과 인적교류와 문물교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같은 시기의 북중국 벽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으로 고구려가 중국을 거치지 않고 서역과 직접 교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¹⁾

수산리 고분벽화의 주인공은 메부리코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도 또한 서역인인 것이 확실하다. 고분의 주인공이 서역인이라는 것은 서역인들이 상당히 오래전에 고구려에 왔으며, 서역인들이 고구려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교예를 하는 장면들을 통해서도 서역인들이 고구려에서 문화적인 활동을 하였다는 것을 고찰할 수 있다. 특히 줄타기와 장대위에 서서 곡예를 하는 모습은 서역지방의 벽화에도 나타나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놀이이다.

1) 정수일, 2005, <벽화에 나타난 고구려-서역 교류상 시고>, <<고구려와 동아시아-문물교류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물관

고구려 고분벽화 천정은 말각조정의 건축형식으로 천정부분을 각을 줄여가면서 마지막에 덧개돌을 얹어 마무리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식은 중국 신강이나 중앙아시아 지역의 건축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경우 간혹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나 형식적이며, 백제와 신라 및 가야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² 올해 8월 중앙아시아 현장답사에서도 말각조정의 건축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번의 현장답사에서 고구려의 장대와 해자와 같은 시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고선지장군의 탈라스전투지를 찾는 현장답사중 잠불시에 있는 옛성터(탈라스언덕)를 조사하였는데 고구려의 가산과 같은 흙더미가 보여 확인해보니 장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연의 언덕을 이용하여 가산을 쌓아 장대로서 이용하였으며, 자연의 강물을 이용하여 해자를 건설한 것을 확인하였다. 해자의 넓이는 1.5미터 정도였는데 성을 돌아가며 일정하게 조성하였다. 대당서역기에도 탈라스에 해자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로써 고선지 장군의 전투지가 이곳 탈라스언덕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고선지 장군이 고구려식 가산을 쌓고 장대로 이용하였으며, 강물을 이용하여 해자로 활용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감신총을 비롯한 초기의 고분벽화에서 뽀족한 연화(수련)이 보인다. 연화문이라고 하면 대개 불교와 상관시켜 이야기하고 있지만 뽀족문양인 경우는 서역 장식미술이 동쪽으로 전해진 것이다. 또한 고구려 고분벽화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는 서역의 문양으로 당초문과 팔메트문양이 있다. 강서대묘에서 당초문은 주로 좁고 긴 벽면의 공간을 메우는 장식문양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집안 5회분과 진파리 1호분에 보이는 팔메트문양은 전형적인 고대 유럽의 장식문양으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 서역을 통해 전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외에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나는 각종 악기들을 보면 서역의 벽화에서 보이는 악기들이 망라되어 있다. 또한 고구려 벽화에 보이는 씨름이나 사냥하는 모습 및 교예하는 장면(중타기, 장대장이)도 서역지역의 벽화에서 보이는 것과 매우 흡사하다. 또한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나는 복식도 서역의 복식과 매우 유사하여 양자간의 교류와 영향을 쉽사리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머리위에 꽂는 조우관의 경우 북방지역 유목민족들에서 발견되는 것들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조우관이 고구려로부터 8000킬로미터나 떨어진 우즈베크의 사마르칸트의 벽화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2. 아프라시압의 궁전벽화

1965년 우즈베크의 사마르칸트시 아프라시압성터의 23발굴지점에서 고구려 사신을 그린 채색벽화가 발견되었다. 사마르칸트 왕인 바르흐만왕의 궁전에 찾아온 샤가디언과 차치의 특사, 그리고 당나라 사절단의 예궐 모습을 그린 그림이 있다. 바르흐만의 생존시기가 당나라 고종 영희년간(650-655)에 해당되므로 사마르칸트의 궁전벽화는 그 시기에

2)정수일, 2005, 위의 글

해당하는 시기의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벽화의 주인공이 바르흐만왕이라는 사실은 벽화에 그려진 옷에 소그드어로 기록된 명문을 통해 알 수 있다..

국가 Coat(chapan)문서 16장
사마르칸드 바흐르만 궁전벽화의 조각

우나쉬 출신의 바르흐만왕이 특사(대사)를 가까이하고 말하였다.
나는 샤키아디안의 특사 푸카르 자테이다. 나는 투르간 왕의 명으로 사마르칸드왕에게 조공을 바치러 왔다.
대왕에게 영광이 있기를

대왕께서는 어떠한 의심도 하지 마십시오.
나는 사마르칸드 신들에 대해 잘 알며, 사마르칸드 칙령에 대해서도 잘 압니다.
나는 사마르칸드왕을 해칠 어떠한 의도도 없습니다.
당신의 영광스러운 삶을 바랍니다. 대왕이시어
우나쉬 출신의 바흐르만왕은 특사를 보내고,
차치 특사가 그의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이 문서를 통하여 이 벽화의 주인공이 바르흐만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샤키아디안(아프카니스탄)과 차치(타쉬켄트)에서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받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바르흐만왕의 재위기간은 640년부터 675년으로 보고 있는데 시작연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며, 종말연대도 의견이 분분하다. 처음에는 620년으로 보는 견해도 있었으나 벽화에 소그드어로 쓰여진 명문이 해독되면서 640년에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종말연대에 대해서는 675년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었는데 추가 발굴로 동전들이 발견되면서 640년과 675년 사이 바르흐만왕 이외에 다른 왕이 한명 더 있었다는 의견이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660년 전후로 바르흐만왕 다음에 다른 왕이 재위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벽화는 바르흐만왕이 재위한 660년 이전의 사실을 그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60년 이후 바르흐만왕 다음 임금이 바르흐만왕을 위하여 그랬을 가능성도 있지만 적어도 벽화의 내용은 바르흐만왕 재위시기의 내용을 그리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명문의 내용이 바르흐만왕이 주인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사서인 <<신당서>>를 보면 영휘년간(650-655)에 바르흐만왕이 강저도독부의 도독으로 임명되는 기사가 있어 주목된다.³⁾ 따라서 아마도 도독으로 임명되는 시기의 장면이 벽화에 그려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벽화는 동서남북 4면에 그려져 있는데 동벽의 내용은 거의 알아 볼 수가 없을 정도이다. 남벽에는 조상신에게 제사의례를 지내기 위하여 왕비와 사제들이 희생물을 들고 가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서벽에 중심에 바르흐만

3) 高宗永徽時 以其地爲康居都督府 卽授其王拂呼慢爲都督 (<<新唐書>> 221, 西域傳 下 康居條)

왕이 위에 그려져 있으며, 좌우로 돌궐족 귀족들이 앉아있는 그림이 있고, 그림에 시종들과 각국의 사신들이 예물을 바치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모두 42명의 인물이 그려져 있는데 그중 30명은 강국의 귀족과 시종들이며, 12명이 내조한 외국 사절들이다.⁴ 벽화에는 주변국 석국(타쉬켄트)과 토하라(아프카니스탄)에서 온 사신들과 함께 당나라 사신들이 바르흐만왕에게 비단을 바치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석국과 토하라의 사신은 2명씩 인데 대하여 당나라 사신은 6명이나 된다. 더구나 그림을 보면 당나라 사신이 비단을 바치고 있으며, 차치나 샤가니언 사신들은 그 다음에 예물을 바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따라서 도둑으로 임명하는 것과 함께 의례를 드리는 것이 그림에 그려졌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북벽에는 중국의 공주가 시녀들과 뱃놀이를 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도둑으로 임명하는 것과 상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보통 의례적인 사신을 파견하는 경우라면 공주까지 올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 그림은 영희년간(650-655)에 도둑으로 임명될 때의 사실을 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맨 왼쪽 하단에 머리에 조우관을 쓴 두명의 사신이 그려져 있다. 이 두명의 사신들을 학자들은 한반도에서 온 사신으로 보고 있는데 이 그림에 나타난 사신이 고구려사신인지, 신라사신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650년 이후에는 신라사람들이 관복으로 당나라 복식을 입었기 때문에 신라 사신으로 보기가 어렵다. 더구나 두 사람의 차림새는 절풍을 쓰고 있으며, 환두대도를 차고 있기 때문에 고구려 사신으로 보는 것이 순리적이라 하겠다.⁵ 특히 이시기는 고구려가 당나라와 대립하고 있었을 때이므로 고구려가 서역지역의 돌궐족이 다스리는 강국(사마르칸드)과 교섭을 위해 참석한 것이 아닌가 한다.

영양왕 18년(607) 고구려 사신이 오르도스 지방에 웅거하던 돌궐 추장 啓民可汗의 장막으로 파견되었는데 수나라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강구하려는 목적이었다. 때마침 그곳을 방문하고 있던 수양제에게 발각되어 경고받은 사실이 <<삼국사기>>에 실려있다.⁶ 이것은 대국이 중간에 가로막고 있지만 고구려의 대서역 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당나라시기에도 계속되었을 것이며, 당의 침공에 자구책의 일환으로 서돌궐을 비롯한 서역 일원의 여러나라들과 교섭을 위해 서역으로 사신을 파견하였을 것이다. 그러한 사실이 아프라시압궁전의 벽화에 그려져 있는 것이다. 샤가니언은 사마르칸드에서 330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차치는 토하라로서 지금의 아프카니스탄인데 400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반면에 고구려는 자그만치 8000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 도보로는 200여일 이상, 말을 타고도 80일 이상 걸렸을 것이다. 더구나 당나라와 대립을 하고 있었을 시기이므로 당나라를 피하여 오아시스로드보다 스텝로드를 통하여 이곳까지 왔을 것이다.

4) L. I. Alibaum, 加藤九祚 譯, 1980, <<古代 사마르칸드의 壁畫>>, 文化出版社

5) 조희승, 2005, <고구려와 서역>, <<고구려와 동아시아-문물교류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박물관.

6) <<三國史記>> 20, 高句麗本紀 8, 嬰陽王條

맺 음 말

고구려와 서역과의 문화교류에 대한 연구는 매우 일천하다. 문헌사료가 영성하며, 고고미술자료 또한 우리가 접근하기에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돌궐비문이 새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를 자세히 분석하여 고구려와 돌궐과의 관계를 새로 규명할 수 있게 되었다.

북한에 소재한 고구려 고분벽화를 현장에서 직접 실견하게됨으로써 벽화에서 서역적 요소들을 더욱 분명하게 확인함으로써 서역과의 문화교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찰할 수 있게 되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나 있는 문양과 복식, 서역인의 모습, 줄타기와 장대장이 등 놀이, 춤추는 모습 등에서 서역과의 인적 교류와 문물 교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를 수용함으로써 고구려는 다양하고 국제적인 고급문화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었다.

사마르칸트의 아프라시압 궁전벽화를 통하여 고구려와 서역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밝힐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장조사를 통하여 더욱 구체적인 내용들을 규명할 수 있었다. 즉 아프라시압 궁전벽화의 조성시기가 바르흐만왕이 강거도독으로 임명되던 영휘년간(650-655)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그드어로 쓰여진 명문을 통해 벽화의 주인공이 바르흐만왕이라는 사실을 통하여 바르흐만왕의 재위기간에 이루어졌으며, 추가발굴을 통해 동전이 발굴됨으로써 640년과 675년 사이에 바르흐만왕 다음에 다른 왕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바르흐만왕은 640년부터 660년 전후까지 재위하였으며 궁전벽화는 그 시기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북벽에 중국 공주가 그려져 있는 것 정황으로 볼 때 영휘년간(650-655)에 강거도독으로 임명될 때의 상황을 그림에 남긴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중 샤가니언과 차치 및 한반도 사신은 2명씩인데 비하여 당나라 사신은 6명이나 된다. 또한 그림의 장면이 당나라 사신이 비단을 바치는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 사신들은 그 다음에 바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맨 왼쪽 하단에 한반도에서 온 사신들은 조우관을 하고 있으므로 고구려 사신으로 파악하였다. 왜냐하면 신라는 650년부터 중국관복을 입었으며, 당시 국제적 상황이 당나라와 대립을 하고 있었던 고구려가 사신을 파견하여 돌궐족들이 장악하던 사마르칸드에 교섭을 위해 온 것으로 파악하였다. 고구려는 이와같이 서역과 끊임없이 교류를 하여 외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다양한 발전을 도모하였던 것이다.